

은행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기준규제 정비위원회 13개 규제개선 의결

핀테크·혁신창업기업 은행 15% 이상 투자

그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제각기 공시하던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이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창업기업 등에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준규제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이 중 13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의결한 과제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 제고 △근거 규정과 은행업계 개선건의 △생산적 금융, 기업금융혁신을 위한 개선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상품을 자의적으로 정해 비교 효용성이 떨어졌다.

과장·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의 은행권 광고 점검 항목도 이차율·부대비용·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어부에 손익 결정방법과 상품 내재위험 표시여부까지 추가한다. 현재 본인(자연인)·대표자(법인)로 한정된 법인고객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도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통해 임직원 등 대리인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건의과제 중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출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은행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통해 예금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제공하던 금융거래 명세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이 포함돼 해석이 어렵다는 건의를 반영해 내년 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래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는 도입 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거래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스포저를 BIS기 본자산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또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의무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제외해 보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생산적 금융 향상 차원에서는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지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령은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 관련 업종, 금융위 인정업종만 15% 이상

의 출자할 수 있게 하는데, 금융위는 지난 10월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해 지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했다. 핀테크뿐 아니라 AI·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등 혁신창업기업까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Ⅲ 최종안(2020년 시행 예정)의 조기도입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바젤Ⅲ가 조기도입되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돼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증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 시기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규제 정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내년에는 법률·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1

올해 소비 키워드 “나만 좋으면 돼”



롯데백화점은 2019 기해(己亥)년 소비 열쇳말로 '나만 좋으면 돼' (포미·For me)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포미'는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 '건강' (For health), '싱글족' (One), '여가' (Recreation), '편의' (More convenient), '고가' (Expensive)의 영문자 앞글자를 딴 것이다.

특히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23~38세)와 Z세대(22살

이하)가 백화점의 주 고객층으로 등장한 '명품 시장'에서 '포미' 현상이 두드러졌다.

'디올덴즈' 김존스 컬렉션, '루이비통' 버질아블로 컬렉션 등 명품 디자인에 스트리트 패션을 접목한 브랜드 협업이 이들 세대에 호평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합리적 가격과 독특한 디자인, 일상복과 함께 입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명품 스니커즈'의 인기가 높았다.

명품 브랜드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 스토어'를 전략적으로 확대한 전략도 적중했다는 평가다.

특히 브이아이피(VIP) 고객 구성비가 높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지난 11월 초고가 리빙 상품을 판매하는 '더 콘란샵'을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확대, 동물보호 소재 확산, '비건' (Vegan) 문화 등에서 비롯된 '착한 소비'가 '포미' 소비 흐름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뉴스1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협약 불발...서진건설 말없이 '불참'

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와 협약 체결 불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2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

최종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시한을 넘기고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 결렬과 함께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진건설은 애초 지난 16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다가 이행보증금 지급보증과 유가증권 반환 등의 문제로 19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날까지 하루 더 연기했다가 연락을 끊었다.

지급보증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를 내고 은행권으로부터 보증받는 제도다.

유가증권은 서진건설이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 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을 내야 한다.

서진건설의 '불안함'은 애초부터 감지됐다. 메이저 회사로 불리는 호반건설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서진건설은 애초 유원지 부지 41만7000㎡에 총사업비 4816억원을 투자해 5성급 특급호텔 160실,

야외이벤트광장(페스타스퀘어), 생활형숙박시설 314실, 갤러리파크, 스트리트몰,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면적을 기존의 7만5900㎡(2만3000평)에서 지하 1개 층을 늘려 1만1570㎡(3500여평)를 추가했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 도시공사 관리감독 범위 한정, 상가시설 사용시기 수익성 고려해 민간사업자 결정, 토지비 납부시기 조정, SOC 지분율변경 조건 승인에서 통보로 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사업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납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유가증권 당좌수표 48억원을 반환하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이행보증금 지급보증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가입 '필승펀드' 수익률 12%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주목받은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2%를 넘어섰다. 최근 미중 1차 무역합의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펀드 수익률 개선의 주된 요인이다.

설정의 기준 10억원이 넘는 국내 주식형 펀드 961개와 비교해서도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률이 앞선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961개 펀드 최근 3개월 수익률은 7.28% 수준이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종의 극일 펀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재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우량한 국내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특히 NH아모디자산운용은 펀드 운용보수 수수료 0.5%의 절반인 0.25%를 기금으로 적립해 소부장 기업 등 기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와 학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순위	당첨계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335,486,167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8	60,400,50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76	1,474,42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4,85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15,593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역당첨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